

'92 월동기 에너지 수급안정대책

- 동력자원부 -

동자부의 '92 월동기 석유수급 종합 대책

동력자원부는 '92년 월동기를 맞아 석유수급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91년 월동기간 국내유류소비가 26% 증가한 전례에 비추어 '92년 월동기에도 석유 수요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등유, 경유, 저유황 B-C유등 가정난방용유류를 중심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올 월동기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과 월동기중의 일시적인 폭설및 혹한시에 소비자에게 적기 수송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92월동기 석유수급 종합 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92 월동기 석유수급 종합 대책)

1. 석유수송 원활화

- 정유사 및 판매업자의 유류수송수단 확충
- 유조차 운행 개선
- 경인구간 송유관 완공 및 활용
- 월동기 민생유류 특별 수송대책 추진
- 수도권 수송차질에 대비 비상대책 수립

2. 소비자 보호

- 시도 및 유통단계별로 수급대책반과 소비자 불편신고센터 운영
- 대한석유협회는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 유류소비자의 사전 연료 확보 권장

3. 석유유통체계 강화

- 대리점별 부관점에 대한 물량공급 책임분담 및 배달서비스 체제 정착
- 정량용기 및 배달 수단확보등 배달서비스 향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의 연휴기간중 윤번제 휴무등 영업독려 대책 강구

1. 최근 에너지 소비동향

○ '89년부터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 추세

	1986~'88	1989	1990	1991	1992. 1~7
-에너지소비증가율(%)	4.5	8.4	14.1	11.2	14.5
-경제성장률(%)	6.2	6.8	9.3	8.4	6.7*

상반기(1~6월) 실적임.

○ 특히, 석유·전기등 고급에너지 수요가 급증한 반면 무연탄 소비는 크게 감소

	1986~'88	1989	1990	1991	1992. 1~7
石 油(%)	9.8	14.6	24.1	19.2	26.9
전 기(%)	13.6	10.6	14.8	10.6	10.8
도시가스(%)	59.4	91.6	63.3	52.3	42.4
무 연 탄(%)	1.0	△11.1	△9.0	△18.4	△26.0

○ 이러한 고급에너지 소비급증에 따라

-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0%를 넘었고, 총에너지중 석유소비 비중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 에너지 수입액은 123억달러(석유수입액 102달러 ; '91년기준)로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15%를 달하고 있음.
- 전기의 경우 단기간내에 발전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90년부터 하절기 수급에 불안요인 발생

	1988	1989	1990	1991	1992. 1~7
에너지수입의존도(%)	83.2	85.5	87.9	91.3	93.8
석유의존도(%)	49.6	49.6	53.8	57.5	62.4
에너지수입액(백만달러)	6,218	7,532	10,926	12,292	8,366
석유수입액(백만달러)	4,472	5,697	9,009	10,172	7,009

2. 월동기('92.10~'93.3) 에너지 수요전망

○ '92년 월동기 에너지수요는 지난해 겨울철 증가율보다 3.2%p 낮은 10.4% 증가한 66,791천 TOE로 전망

《'92월동기 에너지 수급전망》

	단 위	1991 월동기			1992 월동기		
			구 성 비	증 가 율		구 성 비	증 가 율
石 油	천 배 량	266,071	61.3	26.3	313,549	65.3	17.8
L N G	천 톤	1,784	3.8	20.5	2,204	4.3	23.6
무 연 탄	"	10,239	7.8	△26.8	7,788	5.3	△23.9
유 연 탄	"	12,843	14.0	5.8	14,350	14.2	11.7
원 자 력	G W H	27,904	11.5	10.3	26,123	9.8	△6.4
수 력	"	2,036	0.9	2.8	2,064	0.8	1.4
기 타	천 톤	1,431	0.7	△16.5	658	0.3	△54.0
計	천 TOE	60,524	100.0	13.6	66,791	100.0	10.4
전 력	G W H	54,710	-	12.1	59,627	-	9.0
도시 가스	백 만 m ³	1,262	-	62.8	1,647	-	30.5

3. 주요에너지(석유, 전력, 무연탄) 월동기 수급안정 대책

石 油

(1) 수급전망

- 최근 美·이라크간의 관계악화와 국제 원유 성수기를 맞이하여 다소의 유가상승(1U\$정도/B)이 예상되나 원유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 '92.6월 油公, 雙龍, 京仁등의 정제능력이 증가됨에 따라 금년 월동기중 민생유종 물량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
 - 정제시설능력은 전년 월동기대비 41%(485천 B/D) 증가

(2) 문제점

-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충분하므로 전체적인 수급물량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차량증가나 폭설로 인한 교통혼잡 가중시 일시적인 적기공급에 애로 발생 예상
 - 京仁 송유관이 10월말에 완공되면 도시권 공급이 많이 완화될 전망이지만 북부 저유소인 고양시에서 서울까지의 수송애로 요인은 상존
 - LPG는 수도권 수요가 전국의 36%에 달하나 자체공급(경인에너지 생산)비율은 9%에 불과하여 수도권 수급구조 취약
 - 江原道 일부 내륙지역 폭설시 공급부족 우려
- 정상적인 거래질서 문란 또는 공급지연시 일반수요자 피해로 불만야기 소지

(3) 대책

- 석유생산 및 비축능력 제고
 - 국내 정유시설 최대한 가동
 - 정유공장 저장시설 확충(4.5백만 배럴)

- 등유·경유·LPG는 월동기 수요일부를 정유사가 사전 적정한 비축유지가

	'91.12월재고 (지속일수)	'92.12월재고 (지속일수)
--	---------------------	---------------------

- | | | |
|-------|--------------|----------------|
| · 등유 | 1,994천B(13일) | → 4,874천B(29일) |
| · 경유 | 4,780천B(12일) | → 6,330천B(13일) |
| · LPG | 2,352천B(20일) | → 2,984천B(21일) |
- (프로판)

○ 석유수송의 원활한 대책 수립

- 정유사 및 판매업체의 유류수송 수단 확충
 - 유조선 : 93척/292천톤 → 103척/351천톤 (증 59천톤)
 - 유조화차 : 1,650량/77천kl → 1,720량/81천kl (증 4천kl)
 - 유조차 : 6,233대/78천kl → 7,022대/87천kl (증 9천kl)

- 京仁구간 송유관 확충 : '92.10월 완료

- 서울~인천(72천B/D) : 휘발유, 등·경유
- 인천~김포(65천B/D) : 항공유

- 仁川지역 LPG 저장시설 및 수송능력 확충 :

'92.9월 완료

- 프로판 15.9→17.9천톤(2천톤 증설)
- 3.2톤급 연안선박 1척 기확보(탱크로리 84대 추가확보 예정)

- 월동기 민생유류 특별 수송대책 추진

- 정유사, 대리점의 24시간 수송 및 출하체제 확립
- 공휴일, 연휴기간중 석유판매소(대리점, 주유소, 판매점)의 정상영업 독려 및 필요시 시·도 신고후 윤번제 휴업 실시

《동절기 유종별 수급전망》

(단위 : 백만배럴)

유종별	供 給				수요	수출	이월재고
	9월말 재고	생산	수입	計			
등유	4	18	8	30	28	-	2
경유	6	85	8	99	83	9	7
LPG(프로판)	2	3	21	26	24	-	2
B-C油	6	90	16	112	82	23	7
기타제품	8	70	26	104	97	-	7
計	26	266	79	371	314	32	25

- 심야수송 확대를 위해 아파트, 산업체등 석유 대수요처에 대해 일과후 (22:00까지)나 공휴일 유류입고 협조(전국아파트협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관리공단)
 - 설날등 연휴기간중 주요 고속도로 유조차 진입제한 완화 요청(경찰청)
 - 성수기('92.12, '93.1)중 유조차의 도심운행지역 및 시간제한 완화(경찰청)
 - 수도권 수송차질에 대비, 정부 비축유 방출등 비상대책 강구
 - 석유 유통체계 강화
 - 대리점별 판매소에 대한 물량공급 책임 분담
 - 판매소 배달서비스 체제 정착
 - 정량용기 및 배달수단 확보등 배달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의 연휴기간중 운반체휴무등 영업독려 대책 강구
 - 소비자 보호 및 홍보체계 강화
 - 수급대책반과 소비자불편신고센터설치를 운영
 - 당부와 市道の 정유사 및 대리점의 일일수급 및 수송 상황 점검체계 확립
- 정유사→대한석유협회→동자부
 지역별 정유사·저유소·대리점→시·도
 주유소·판매소→시·구·군

 - 정유사, 대리점은 자체 수급대책반과 消費者 不便申告센터 설치 운영
 - 소비자에 대한 월동기 특별 홍보계획 추진
 - 진출기관 : 동자부,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 홍보내용 : 석유수급대책, 소비자 협조요망 사항, 소비자 불편신고센터 활용등

전 력

《동절기 전력 수급전망》

(단위 : 천KW, %)

	1992			199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시 설 용 량	23,880	24,040	24,120	24,120	24,520	25,320
공 급 능 력	20,444	21,115	21,317	21,972	21,859	21,868
최 대 수 요	18,800	19,400	19,600	19,400	19,200	19,000
예 비 전 력	1,644	1,715	1,717	2,572	2,659	2,869
예 비 율	8.7	8.8	8.8	13.3	13.8	15.1

(1) 수급전망

- '92년도 월동기 최대수요는 19,600천KW수준으로 '91년 同期의 18,036천KW에 비하여 8.7%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 '92년 10월부터 신규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월동기중 전력공급 예비율은 약 9~15% 수준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특히, '93년도 1/4분기에는 13~15%수준의 예비율 유지 가능

(2) 문제점

- 전력 성수기인 여름철의 공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력수요가 적은 동절기에 발전소 예방보수가 많아 '92.10~12월기간중 공급예비율이 적정수준인 15%보다 낮은 9% 수준 예상
- 석유대체발전소의 증가없이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발전부문에서 석유소비가 크게 증가
 - 발전부문 총석유소비는 33,595천Bbl로서 전년 동기대비 47.5% 증가 전망

(3) 대책

- 공급능력의 확충
 - 신규발전소를 계획대로 적기 준공
 - 보령화력등 12기 준공으로 1,450천KW 공급능력 향상
 - 의존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용
 - 정기 보수기간의 합리적 단축 및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 이용 간이정비 확대
 - 월동기 고장다발 설비의 예방점검을 강화하여 발전기의 불시 발전정지 예방
- 지속적인 수요관리 강화
 - 전력 다소비업체(266개) 및 건물(100개)의 수요관리 계속 강화

- 고효율 절전형 기기보급 확대
- 정기 안전검사와 병행하여 전기사용실태 無料 진단 실시(1,600개업체)

- 발전용 석유절감 특별대책 수립 추진
 - 석유 소비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비 약20%(약 4,350천배럴) 절감 추진
 - 증가율을 당초 48%에서 28% 수준으로 감축
 - 원자력·석탄등 석유 대체발전소 가동률 향상
 -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의 조기가동 방안 강구
 - 발전용 석유의 재고수준 감축 운영방안 강구 (6,278천배럴→3,600천배럴)

무연탄

(1) 수급 전망

- '92년 월동기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23.9% 감소한 7,788천톤이며, 공급은 14,533천톤으로 무연탄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연탄용 수요는 전년 월동기 대비 26.7%가 감소한 6,774천톤으로 예상

(2) 문제점

- 최근 가정용 연료가 도시가스·전기등 고급연료로 전환됨에 따라 연탄사용 가구의 他燃料 대체 및 가구당 연탄 사용량 감소에 따라 국내부존 유일자원의 개발한계 직면
 - 他연료 대체비율 : 16.3%
 - 가구당 연탄사용 감소율 : 10.4%

전년대비 연탄사용 감소율(26.7%)

- 연탄 수송차량 및 판매업소의 감소로 가정배달 지연사례 발생우려

(3) 대책

- 연탄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산지채화 가중해소를 위하여 월동기중 정부비축탄 추가 구매(93천톤)
- 외국 무연탄 도입역제

- 국내탄 공급과잉과 국내 탄질 향상으로 축소 도입

《수입 물량》

'91 월동기	'92 월동기	증 감
423천톤	42천톤	△381천톤

- 월동기대비 연탄공장의 夏季저탄 사업추진

'92 계획	8월까지 실적	계획대비(%)
3,107천톤	2,142천톤	68.9

-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농협을 통한 연탄가정 저탄을 실시하여 배달위약지역에 적기공급
 - 농협이 당해구역 里·洞別로 연탄저탄물량을 신청·접수
 - 연탄공장은 농협의 요청물량에 대해 里·洞別 배달 공급

'92계획(연탄)	8월까지 실적(연탄)	계획대비(%)
831천톤(231백만개)	622천톤(173백만개)	74.8

- 도시 高地帶, 도서지역 연탄비축 실시 및 수송용 장비확보 운영
 - 시·도로 하여금 수급위약지역에 대하여 연탄을 비상용으로 상시 비축토록 지도
 - 읍·면·동 단위별로 배달위약지역을 선정하여 차체 비축계획 수립, 실시
 - 동절기 고지대 수송원골을 위한 차량등 관련 장비 확보 운영
- 비상시 정부비축탄 방출

4. 시·도 협조사항

석유부문

- 석유 유통체계 강화대책 수립
 - 판매점 신고시 대리점의 공급계약서를 제출받아 공급물량 책임 분담
 - 판매점에 대한 공급계약을 위배하여 공급을 기피하는 대리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월동기 무연탄 수급 전망》

(단위 : 천톤)

	수	요	재	고
14,533(△17.4)	7,788(△23.9)		6,745(△ 6.4)	
- '92.9말 재고 : 9,258	- 연 탄 용 : 6,774		- 연 탄 공 장 : 2,237	
- 생 산 : 5,233	- 발 전 용 : 978		- 정 부 비 축 : 2,911	
- 수 입 : 42	- 산 업 용 : 36		- 기 타 : 1,597	

() 内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대리점과 판매점간 정상적인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배달을 이유로한 정량거래 위반행위의 철저한 단속
- 등·경유 배달로 문제는 판매점과 소비자간에 서비스차원에서 해소토록 통보
- 정량 용기 및 배달수단 확보등 배달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조치 강화
- 월1회 정기품질검사 이의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수시품질검사 실시
-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의 공휴일, 연휴기간중 정상영업 독려 및 필요시 윤번제 휴무실시 독려
-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별 정유사 저유소 수지 확보 및 증설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처리 협조
- 소비자보호를 통한 국민 신뢰제고 및 소비자 협조 지도
 - 시·도 자체 수급대책반 및 소비자 불편신고센터 설치 운영
 - 아파트·산업체등 대리점 직매처는 가급적 교통혼잡이 덜한 일과후와 공휴일 유류 入庫 협조토록 지도
 - 시·도별로 폭설 또는 상습 수송위약 지역에 대한 자체 수송대책 수립

전력부문

- 전기 소비절약의 지속적 추진
 - 사용전력의 10%절감 추진
- 근본적인 전력문제 해결 협조
 - 발전소 및 변전소등 전력시설 신·증설지역 주민계도로 立地難 해결 협조
 - 한전과 협조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필요성 및 안전성 홍보
-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 반상회 활용 및 민간소비자 단체와 협조

무연탄부문

- 비수기중 연탄공장 및 가정저탄 확대 지도
- 배달 취약지역 연탄비축 확대 및 수송장비 확보
 - 각시·도별로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대, 오지 및 도서지역에 연탄 사전비축 확대 추진

- 연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차량등 관련장비 확보
- 관할 구역내 연탄수급상황 사전 점검
 - 연탄공장 재고수준 및 가정배달 지연현상등 수시 점검
 - 월동기중 가정배달 불편신고센터 운영
 - 연탄공장 재고 부족으로 인한 연탄과동 우려시 즉시 당부에 상황 보고
- 연탄 품질검사 실시
- 연탄 공급지역 전면폐지에 대비한 벽지·도서지역등에 대한 연탄유통 원활화 도모

국제외교

「서울」중국식표기 「首塢雨(쇼우루)」로 바뀐다

韓·중수교계기 발음비슷하게...「으뜸도시」의미

韓·중수교를 계기로 「서울」의 중국식표기인 「漢城」의 개정작업이 활발히 진행돼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駐중국 한국대사관의 문제제기로 표면화된 서울의 중국식표기 개정 논의는 漢城이라는 명칭에는 사대주의가 내포됐다는데서 발단.

高麗시대까지 南京으로 불리던 서울이 朝鮮의 화친정책에 따라 「中國의 작은城」을 의미하는 漢城으로 바뀐 이래 지금까지 중국측에서는 이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공보처는 韓·중수교가 임박한 지난 6월 역사·지명학자들로 팀을구성, 「서울」의 한자작명에 착수해 3개월간의 연구끝에 「首塢雨」로 결론. 중국발음으로는 「쇼우루」가 되는 이 명칭은 발음상 넣은 雨자를 뺀 首塢가 「으뜸수」, 「언덕오」자로 「으뜸터」 또는 「으뜸도시」를 의미.

전문가들은 이명칭이 중국인들의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